



2016 년도 동남아시아, 중국 및 인도 경제전망, 지역적 유대 강화가 아시아 신흥 국가들의 성장 모멘텀 유지 관건

2015 년 11 월 20 일 쿠알라룸푸르 – OECD 개발센터에서 최근 발표한 동남아시아, 중국 및 인도 경제전망에 따르면 많은 OECD 국가들에 대한 전망은 우려스럽게도 가라앉아 있는 반면 신흥 아시아 국가들(동남아시아, 중국 및 인도)은 최근 몇 년보다 완화되기는 했지만 중기에 걸쳐 견실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보고서는 U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및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와 협력을 통해 작성되었다.

신흥 아시아 국가들의 실질 성장은 2015년 평균 6.5%, 2016년-2020년에는 해마다 평균 6.2%로 예측된다. 성장은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느려지겠지만 해당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인도에서는 강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지역의 성장은 아세안 5개국 중 필리핀과 베트남, 그리고 CLM(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 국가들의 성장에 힘입어 2015년에는 평균 4.6%, 2016년-2020년에는 평균 5.2%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민간 소비가 전반적인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전망은 이 탄탄한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이 나머지 지역의 성장 전망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될 중국의 성장 둔화, 미국의 통화 정상화, 생산성 성장 둔화를 극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해당 보고서는 해당 주제를 별도로 다룬 장에서 지역간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린타로 타마키 OECD 사무차장은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비즈니스 투자 정상회의에서 해당 전망을 소개하며 “이 지역은 국내 및 대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더 좋은 지표와 상호 학습을

통해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하면 지역적 의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고 *글로벌 아세안* 통합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협동의 규모와 범위는 국가들 사이에, 지역들 사이에, 그리고 하위 지역들 사이에 극대화될 필요가 있다.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글로벌 아세안 수준에서 이러한 유대들을 통합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이웃 경제와의 협력을 심화하는 것이 관련된다. 해당 전망에 따르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단일 경제 시장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수준의 관계들로 이루어진 강력한 네트워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해당 지역을 통틀어 빈곤 지속과 인프라의 불균형 상태가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조치를 필요로 하는 국가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다.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민간 분야는 물론 녹색 성장이 통합 의제를 통해 커다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마리오 페치니 OECD 개발센터 소장은 단언한다.

관세 및 비경제적 장벽을 제거하면 통합을 촉진할 수 있고 수요가 있는 재생 에너지의 거래를 촉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메콩강의 수력 전기는 동남아 전체로 수출되는 유망한 미래 발전 공급원이다. 마찬가지로, 더욱 강력한 경제적 통합을 통해 현지 기업들이 국경선을 넘어 영업을 확장하여 지역 기업 또는 *아세안 기업*으로 변모할 수 있는 명백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해당 전망에서는 내다본다.

해당 전망의 국가별 구조 정책에 대한 주석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새로운 개발 전략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금융, 인프라, 노동 시장 및 환경 정책은 물론 농업, 교육, 사회 보장 및 관광 분야에 포괄적인 개혁 패키지를 채택할 것이 요구된다.

자세한 정보

OECD 개발센터 다나카 켄스케, 아시아 담당 부서장(Kensuke.Tanaka@oecd.org; 전화: +336 27 19 05 19) 또는 보크라 크리오, 미디어 담당관(Bochra.Kriout@oecd.org; 전화: +336 26 74 04 03)

국가별 정책에 초점을 둔 2016 년도 동남아시아, 중국 및 인도 경제전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oecd.org/dev/asia-pacific/>을 방문하십시오.

본 경제전망은 2014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 출범한 *OECD 동남아시아 지역 프로그램*에 공개됩니다. 본 프로그램은 OECD 및 아세안 국가들의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 모범 사례 교환 및 상호 학습 촉진을 목표로 합니다.